

‘타오르는 강 박물관’ 내년 3월 나주에 문연다

문순태 작... 영산포 배경 모티브 근대건축 ‘구로즈미’ 가옥 리모델링 개인 소장 3000여권 문학서적 기증 문예창작 교실·도서관 등 운영 예정

나주시에 문순태 작가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에서 모티브를 얻은 ‘타오르는 강 박물관’이 내년 3월 개관한다. 나주 예향로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시기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는 박물관에는 문순태 작가 육필원고 등이 전시된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소설 ‘타오르는 강’ 저자인 문순태 작가와 ‘타오르는 강 박물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박물관은 ‘흥어의거리’라 불리는 나주시 영산포에 위치한 예향로에 동지를 틔다. 기존 나주시 소유로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됐던 한 근대 건축물 가옥을 리모델링해 박물관 건물을 마련한다. 본래 일제강점기에 나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보유했던 일본인 대지주 구로즈미 이타로의 가옥이었으며 소설 ‘타오르는 강’의 시대 및 공간적 배경이 일맥상통해 적임지로 꼽혔다.

나주시는 박물관에 문순태 작가의 작업

실을 구현하고 소설 ‘타오르는 강’의 육필원고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순태 작가가 개인 소장한 문학 관련 서적 3000여권을 기증해 이를 비치할 도서관도 마련된다. 나주시는 박물관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문예창작 교실과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다채로운 문학행사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전 9권)’은 영산강과 영산강 유역 중심도시인 나주시 영산포를 무대로 쓴 작품으로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고향과 한(恨)의 민중사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한국문학의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비세습제가 폐지된 1886년부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궁삼면(영산포·세지·왕곡) 농민운동사건을 비롯해 △한말의병 △동학운동 △1897년 목포 개항 △1912년 호남선, 1913년 국도1호 개통 등 나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절절한 고증을 통해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음식, 복식, 풍속, 토박이 말 등을 엿볼 수 있는 것 또한 소설의 주요한 특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박물관을 통해 지역민에 문학적 감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나주시에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타오르는 강 박물관’이 내년 3월 개관한다.

나주시 제공

제공하고 인문학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피드백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순태 작가는 “문인 양성은 물론 영산강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순태 작가는 담양 출신으로 2006년 고향인 담양군 가사문학면 생오지 마을로 귀향, 재단법인 생오지문예창작촌을 설립하고 후진을 양성에 전념, 41명을 문단에 등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965년 현대문학 시 추천과 1974년 한국

문학에서 소설 ‘백제의 미소’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등단했다. 전남일보 초대 편집국장과 주필을 지냈으며 한국소설문학작품상, 문학세계작가상, 이상문학상특별상, 채만식문학상, 송순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도선인 기자**

16일 토요일상설무대 ‘국악의 향연’

가·무·악 종합공연 선배

일 년 중 가장 겨울에 이르는 날인 ‘동지’. 전통 국악무대와 함께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16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토요일상설무대로 ‘국악의 향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동짓날에 앞서 선보이는 가·무·악 종합공연이다. 기악합주 ‘경풍년’을 시작으로, 가야금병창 단가, 무용 ‘장구춤’,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기악합주 ‘시나위’, 남도민요 ‘동백타령’, ‘산아지타령’, ‘판굿’과 ‘대동놀이’를 선보인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경풍년’은 ‘풍년을 기뻐한다’는 뜻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풍년을 바라며 준비한 곡이다.

가야금병창 단가 ‘백발가’와 춘향가 중 ‘갈까부다’를 선보인다.

단가 ‘백발가’는 ‘만고영웅과 진시황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으로 ‘백

발이 되어 보니 인생은 허무하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하는 곡이다. 춘향가 중 ‘갈까부다’는 춘향이 몽룡을 그리워 하는 심정을 표현한 대목이다.

무용수가 장구를 연주하며 추는 ‘장구춤’, 판소리 심청가 중 상봉한 부녀의 모습 등을 담은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부조화 속 조화로운 선율을 연주하는 ‘시나위’, 남도민요 중 동백꽃을 따는 처녀들의 수줍은 마음과 총각들의 애타는 마음을 담은 ‘동백타령’, 경쾌한 장단의 ‘산아지타령’을 선보인다. 풍물굿, 소고춤, 진도 북춤이 함께 어우러진 ‘판굿’, ‘대동놀이’가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정관스님·송기희 호남대 교수 ‘별방비건부각’ 개발·출시

김·연근 등 비건부각 5종

사찰음식 명장이 만든 별방비건부각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장성 천진암 정관스님과 송기희호남대 교수가 협업을 통해 비건부각 5종을 개발, 출시했다.

바루자연음식연구소가 전남창조혁신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1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비건부각은 김, 연근, 우엉, 가죽부각, 새송이버섯 등 5종으로 구성됐다.

비건부각 맛의 비밀은 자연본연의 맛, 천진암 오래된 간장의 깊은맛, 옛방식대로 발효시킨 찰쌀죽에서 나오고 있다.



정관스님(왼쪽)과 송기희 교수.

비건부각 개발에 참여한 송기희 교수는 “정관스님 부각에는 찰쌀죽에 소금대신

간장이 들어가 부각에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는 게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정관스님의 손맛은 지난 2015년 뉴욕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드는 분”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정관스님은 “비건은 자연 그대로 맛을 살려 인공조미료나 동물성을 넣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만들었다”며 “재료는 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별방은 ‘별식지지방 특별한 맛’을 보는 방의 줄임말로 음식디미방에서 따온 말이다. 별방비건부각 구입은 네이버 온라인몰 별식지지방 예약 주문만으로 가능하다. **박칸재 기자**

사후세계 이야기 담은 한일합작 무용극 무대 오른다

15~16일 ACC 예술극장 극장1

사후세계 이야기를 재치 있게 풀어낸 한·일 합작 무용극이 관객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사후세계’와 ‘전생과 윤회’를 소재로 한 무용극 ‘솔직히(Frankly)’를 오는 15~16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솔직히’는 단순하지만 비상한 소재로 재미있게 작품을 풀어내는 한국 무용단 고블린파티와 참신한 발상을 날 것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일본 무용단 케다고로가 만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창·제작 공연이다.

이번 작품은 두 무용단의 공통 관심사였던 ‘사후세계’와 ‘전생과 윤회’를 그들

특유의 재치 있고 율동적인 몸짓에 담아냈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무용수들이 연대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주제로 두 나라의 정서적 공감을 이야기한다.

고블린파티는 ‘굴러가지 않는 네모’를 굴리는 것에 몰두하며 구성원 모두가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무용단이다. 케다고로는 ‘무용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안무가 시모지마 레이샤(Shimojima Reisa)와 무용수 7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신진 무용단이다.

이번 공연의 관람연령은 7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한 인터넷 예매나 전화(1899-5566) 예매 모두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 ‘동구친구’ 25명 배출

로컬관광전문가 육성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은 동구형 관광헬퍼 ‘동구친구’ 교육을 통해 25명의 동구친구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친구’는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맞춤형 투어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재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 동구 관광에 관심있는 이들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동구만의 콘텐츠를 교육해 로컬관광전문가로 육성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로컬관광 트렌드 △스토리텔링 작성법 △주목받는 관광콘텐츠 개발 비결 △코스기획 및 현장실습 등 관광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강의가 진행됐으며 25명의 동구친구가 배출됐다.

베트남 출신으로 광주 거주하는 수료생 류미애씨는 “외국인 교육생 2명이 전 교육 과정을 수료해 뿌듯하다”면서 “베트남 관광객에 광주와 동구를 알려주고 수준높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의 투어가이드 ‘동구친구’가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은 관광가이드로 성장해 활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구친구’ 교육 수료자는 향후 골목투어, 야간경관투어, 동구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생동감 있는 지역 이야기, 로컬 맛집, 지역 핫플 등을 안내하는 지역관광전문가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화형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인 “동구친구는 지역관광 최일선에서 동구를 알리는 문화관광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동구친구가 지역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